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Tuesday 18 November 2008 (afternoon)  
Mardi 18 novembre 2008 (après-midi)  
Martes 18 de noviembre de 2008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a)

헐려 짓는 광화문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은 마침내 헐리기 시작한다. 총독부 청사(廳舍) 까닭으로 헐리고 총독부 정책 덕택으로 다시 지어지리라 한다.

5 원래 광화문은 물건이다.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며, 노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밝히면 꾸물거리고 죽이면 소리치는 생물이 아니라,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의식 없는 물건이요, 말 못하는 물건이라, 헐고 부수고 끌고 옮기고 하되, 반항도 회피도 기뻐도 설위도 아니한다. 다만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땅을 같이한 조선의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다. 오백 년 동안 풍우(風雨)를 같이 겪은 조선의 자손들이 그를 위하여 울어도 보고 설위도 할 뿐이다.

10 석공의 망치가 네 가슴을 두드릴 때도 너는 알음[知]이 없으리라 마는, 똑딱다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가슴 아파하며, 역군(役軍)의 연장이 네 허리를 들출 때에 너는 괴로움이 없으리라 마는, 우지끈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허리를 저러할 것을 네가 과연 아느냐, 모르느냐.

팔도 강산의 석재와 목재와 인재의 정수(精粹)를 뽑아 지은 광화문아! 돌덩이 하나 옮기기에 억만 방울의 피가 흐르고, 기왓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이 흘렀던 우리의 광화문아! 15 청태(靑苔) 끼인 돌 틈에 이 흔적이 남아 있고 풍우 맞은 기둥에 그 자취가 어렸다 하면, 너는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네 생명이 있으며,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네 일생을 마친 것이다.

풍우 오백 년 동안에 충신도 드나들고 역적도 드나들며, 수구당도 드나들고 개화당도 드나들던 광화문아! 평화의 사자(使者)도 지나고 살벌(殺伐)의 총검도 지나며, 일로(日露)의 사절도 지나고 원청(元淸)의 국빈도 지나던 우리의 광화문아! 그들을 맞고 그들을 보냄이 너의 타고난 천직이며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가리킴이 너의 타고난 천명이라 하면, 너는 그 자리 20 그 곳을 떠나지 말아야 네 생명이 있으며, 그 방향 그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네 일생을 마친 것이다.

너의 천명과 너의 천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거니와, 너의 생명과 너의 일생은 지금 25 헐리는 순간에, 옮기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없어지려고 하는구나! 오오, 가엾어라! 너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알되 너는 모르니, 모르는 너는 모르고 지내려니와 아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라느냐.

총독부에서 헐기는 헐되 총독부에서 다시 지어 놓는다 한다. 그러나 다시 짓는 그 사람은 상투 짙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며, 다시 짓는 그 솜씨는 피 묻은 옛날의 그 솜씨가 아니다. 30 하물며 이 사람의 감정과 기분과 이상이야 말하여 무엇 하라?

다시 옮기는 그 곳은 북악을 등진 옛날의 그 곳이 아니며, 다시 옮기는 그 방향은 경복궁을 정면으로 한 옛날의 그 방향이 아니다. 서로 보지도 못한 지가 벌써 수년이나 된 경복궁에 옛 35 대궐에는 장림(長霖)에 남은 곳은비가 오락가락한다. 광화문 지붕에서 똑딱 하는 망치 소리는 장안(長安)을 거쳐 북악에 부딪친다. 남산에도 부딪친다. 그리고 애달파하는 백의인(白衣人)의 가슴에도 부딪친다…….

(설의식, 동아일보, 1926)

1. (b)

화살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5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박혀서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위를 떠나자.

몇 십 년 동안 가진 것,  
10 몇 십 년 동안 누린 것,  
몇 십 년 동안 쌓은 것,  
행복이라던가

똥이라던가  
그런 것 다 냥마로 버리고

15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이 소리친다.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 과녁이 달려 온다.

20 이윽고 과녁이 피 뿔으며 쓰러질 때  
단 한번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돌아오지 말자!

돌아오지 말자!

25 오 화살 정의의 병사여 영령이여!

(고은, <새벽길>, 1978)